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鎭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지리番號 7500875
對舊口座 010017-31-0621555

[1] 月刊

[1976. 4. 13 登錄番號 (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3년 7월 1일

第 184 號

冠岳캠퍼스 滿員, 敷地 확장 시급



▲1백30여동으로 꽉찬 冠岳캠퍼스 全景(사진). 校舍와 研究棟 등으로 숲통이 막힐 상태에 놓인 母校는 敷地확장이 시급한 형편이다.

冠岳春秋

모교 冠岳캠퍼스는 滿員이다. 75년 冠岳캠퍼스로 移轉당시에는 50개동의 건물이 있었는 데, 이제 1백30여개동으로 늘어나 약 3배로 증가하였다. 확 트인 수변로에서 내려다 본 冠岳캠퍼스의 경치는 壯觀이었는데 이제 수변로 곳곳에 조그마한 건물이 솟아 올라가 불어서 경관을 망치고 있다.

시끄러운 서골로하기 힘들다고 하여 비워 둔 대운동장 주변에도 社會大學 건물의 신축이 한창 진행중이고 대운동장 바로 위에 經營大學과 博物館 등이 들어섰고 미구에 行政·情報館이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들 첨단기술들이 주변을 울리는 소음과 어떻게 조화될지 걱정이다. 또 工科大学은 그 많은 신축건물로 모자라 3만평에 달하는 거대한 고층건물을 건설하고 있다. 이로써 남북 冠岳산의 眺望이 차단될 것이 우려되고 있으며 慈雲庵 아래의 綠地가 개조되어 현란, 모듬을 보이고 있다.

冠岳캠퍼스가 滿員이 된 것은 그동안 학생수가 두배로 늘어났으며 工學教育 연구시설의 확충계획으로 많은 연구소가 늘어나 독자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水原캠퍼스의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수업이나 연구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冠岳캠퍼스의 통풍성 때문에 수리조차 용케 안되어 방물대로 남은 상태라고 한다.

冠岳캠퍼스의 敷地難을 해결하고 水原에 있는 農業生命科學大學의 冠岳移轉을 위하여 그동안 母校에서는 安養樹木園의 임지를 冠岳으로 이주할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 農生大의 移轉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나 강의실과 연구실만을 冠岳으로 이전하고 실험실 등지는 그대로 두는 점에서 반대할 일이 못된다. 오늘날 農生大와 自然大 生物系統學科는 밀집하게 개원되어 있으며 環境大學院의 造景專攻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연계연구하는 것은 합리법칙

서울대학교 施設확충계획

과 교육내용을 기하기 위하여 극히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建設部가 首都圈정비계획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이를 허가해 주지 않은 것은 한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르면 大學의 新設은 제한될 수 있다. 원래 서울에 있던 獸醫大學 農生大의 일부 시설이 서울이 아닌 安養연동읍으로 온다고 하여 인근수가 아주 많아진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것은 한민족의 중요성과 연구교육의 능력제고의 협력을 무시하는 야만행위라고 하겠다.

製造業 建設현장화를 이유로 工科大学의 定員을 대폭 증가하면서도 農生大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는 移轉조차 해줄 수 없다는 것은 短見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퇴화일로를 거듭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완전히 상실된 農業의 부흥을 위해서도 교육·연구시설의 冠岳이전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서울大學校의 현시 설비를 安養연동읍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하겠다. 현재의 안양로보임은 서울大學校 관리하에 있는데 이를 건물 일부 增築地로 전용해 주지 않는 것은 洪陵연동읍내에 많은 政府기관을 건축해 준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하겠다.

民族의 大學이요 世界의 大學으로 雄飛해야 할 서울大學校로서는 大學院중 심대하에 상응하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지위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政府는 그 리벤지에도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건립케 한 전례에 따라서 서울大學校의 중흥화, 발전에도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과학시대에 있어 연구개발만이 국제경쟁력을 키우게 되는 것 을 위하여 近視眼的인 정책을 펴는 경우 무 리한 리벤지에도 나눌 것 없이, 應用科學의 발전도 기할 수 없는 것이다. 政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教育立國을 위한 土地利用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다. 政府의 서울大學 敷地難 해결을 위한 決斷을 바란다.

未登録동문 所在확인작업 實施

地域・職場別 千点確認

직업별 電算化 추진, 회원관리 체제로

장한 기복조성에 정면했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를 대표해 참
석한 鄭正인(鄭正仁)은 "이
제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
을 중심으로 한 열의와 모
교와 국가에 이바지하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선출된 그밖의 임

선임 정안 결의

定總서 吳慶根 회장 선임

忠北支部 장학기금 조성안 결의

美大동창회서
10차 임원선임
美術大學同窓會(회장 金

〈吳慶根 회장〉

寧淑(61년卒)・李鍾祥(63년卒)・吳京煥(63년卒)・李種福(66년卒)・裴成桓(83년卒)

▲事務局長・劉仁洙(70년卒)・祥明女大교수



▲忠北支部는

科研기금
出捐

골프모임서 2천5백불募金

육에 거주하는 노유자를 위한(李典九老人), 선경아리카(金興亞利卡), 알파인(11강태원등), 캠프리니(멤버스)임진식등등) 등 많은 작품을 출품해와서, 선한 대회를 이뤘다.

뉴욕지부에서는 지난 10월에도 科學基金同參위해 골프대회를 열었으며 천1백달러를 모금, 本에 送金해온바 있다.

선출된 **『서울대인의 글』**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인의 글』을 갖고 다녔던 모습을 보인 자'고 말한 뒤 '그간 미처 했던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회를 마친 후 오랫동안 안 만나지 못했던 동료서로가의 근황을 소개하는시간을 가졌으며

사(卒)결정(決定)한 우연(偶然)으로
사가 있었으며 韓懷(56
商大卒) 경기도 교육감(教
『지나친 자조심·자부심』
버리고 서로가 화합(和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

고 모교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양이
로의 계획을 피력했다. 수
석부회장은 沈載德(63
년 農大卒·동서철강 사

寧淑(61년卒)・李鍾祥(63년卒)・吳京煥(63년卒)・李種福(66년卒)・裴成桓(83년卒)
▲事務局長・劉仁洙(70년卒)・祥明女大교수

이러한 李相大각사의 사회로 李相大각사로 회원부 발행하는 李相大각사의 활동 및 모교 소식보고, 92년도 결산 및 93년도 예산 심의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지역청와회 활동의 광주광역시청와회 활동의 발안과 발정기금 모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環境大學院원장 金炯國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하여 그간 環境大學원의 발달해왔던 도시환경연구소가 아까 할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해 「都市·環境分野 硏學의省察과展望」이란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가졌다.

잘못된慣行、意識 전환의契機가목표

글·金宗鎬 (59년 法大卒·民自黨 政策委員長)

약 2달 전, 2월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 14대 대통령 취임식 은 의례적으로 지금까지의 대통령 취임식과 별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취임식을 하고 있는 김대중 새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의 눈과 지각으로 인식되어 정통성을 획득한 대통령에게 힘이 있었다. 또한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 볼 수 있는 바와같이 정통성 근원인 복수리와의 달리 새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엇이든 호소하고 있었다. 주의를 끌었고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한 한국을 되찾아온 「新韓國」을 건설하고자 의치고 있었다.



취임식 다음날부터 우리 사회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앞길에 개방되고 密室 政治의 온상이었던 안씨가 철거되거나 공개 되었다. 안씨는 공식직을 중단하고 본

사실, 改革이란 것은 살아남기 위한 自己本能이다. 또한 그것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해왔던 부분만 自己革新이요 구되어 지는데, 우리 나라에는 有機體의 중추부분이 썩어 있는 상황에서 민족생명의 新韓國 건설을 위해 改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改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 文民政府가 1개

사회·경제正義 실현위한 방향으로

政黨·선거·政資法 개정, 道德정치 펼쳐

지금까지의 改革方向은 憲法의 精神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舊 時代의 잘못을 바로 잡고, 非正當을 正當으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特權과 規制를 철파고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의 改革은 社會正義와 經濟正義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이루는 일이다. 法과 制度를 고쳐

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자금 없이 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서 대통령 스스로가 政治改革을 위하여 苦痛을 감수하고, 솔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으로 우리 黨은 재산공개를 했다. 野黨도 따라왔다. 우리 黨은 지난 입국회에서 與·野합의로 公職者倫理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公職者의 올바른 像과 規範을 정착시킬 수 있게 되었다. 政治人, 公職者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 함께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 참여의 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치 자금을 개정해서 진정한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치를 구현해 나가고자 한다.



政治改革 어떻게 할 것인가?

與·野의 視覺

언이 아닐 정도로 改革風이 거세게 불어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改革바람은 우리 나라의 결코 예외가 아니다. 지난 2월 金泳三大統領의 취임식 이래 시작된 일련의 개혁의 파고는 88년 12월 軍事文化에 전승되었던 우리 사회에 큰 바람을 불러일으켜 왔다. 文民政府라는 正統성과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개혁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거대한 개혁의 흐름은 정부 출범 5개월째 접어들어 지금에 와서야 국외에서 「改革의 後退」라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무민정부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를 모았던 金泳三政府의 「光州問題」해결방안이 애초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는가 하면, 「無

다. 32년만에 법적 절차에 의해 문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권력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되었지만, 과거의 既得權 勢力과 연합하여 집권하게 된 것이 바로 개혁을 가로막는 본질적 한계가 되고 있다. 이제 金泳三政府는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대적 과제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개혁의 별다른 성과를

法·제도적 장치 마련, 改革一貫性질실

정치개혁 持續하려면 過去청산 우선해야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過去清算의 改革바람이 한창이다. 「마니폴」리(개국한 순)란 이름의 政治圈 사장이 한창인 이탈리아에서는 전직 총리들이 과거의 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일본은 전직 자민당이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新黨」을 창당하고 있다. 38년 이래 최대의 危機를 맞고 있다. 이외에도 中南

상환(한) 개혁의 표명, 「이민노」노의인적 차원에서 무조건적 赦免(등) 초기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의욕적인 정책 방향이다. 「北韓核問題」와 남북 간담회들의 드세한 양상에 부응해 좌초할 지경에 이르렀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亂脈(亂)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현 집권당 정부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적 개혁을 위해 민족의 통일로 가야 하는 중대한 진로를 서었다. 갈수록 급속히 변화해 가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통일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사회 내부의 철저한 개혁과 함께, 과거 냉전의 산물인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統一國家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글·李富榮 (69년 文理大卒·民自黨 最高委員)

改革완성으로統一국가기반다져야

스승과 제자

▲弟子: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실 때에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생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휴직하신 후의 근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弟子: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생활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휴직하신 후의 근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弟子: 선생님께서 서울대학교에 재직하셨을 때는 누구보다도 바쁘게 생활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 휴직하신 후의 근황을 어떻게 하십니까?



스승 邊 衡 尹
<經營大 名譽교수>



제자 金 秀 行
<65년 商大卒·母校교수>

"經濟民主化 이룩되는것이 宿願"

을 위해 同窓會에서 마련한 이 자리를 빌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친구들을 연「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 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스승:母校를 떠난 이후의 생활은 강의시간이 3분의 1정도로 줄었다는 것이 외에는 별반 변화가 없었습니다.

▲스승: 89년 7월 경엔 이사를 20여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는 아

한 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스승:金先生도 우리 연구소理事로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엔 김에 관한 브리핑하는 기분으로 이야기하면서 연구소에 대해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년퇴임기년식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일제의 잔재나 지위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약속이자 소망을 나름대로 實現시키려는 것이기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도 동창가운데 선의를 보인 분들이기

금을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그 결과로써 은혜에 나눌 생각입니다. 양친의 연구방향은 對外로 제네트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弟子: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교수님들도 대체로 선생님과 같이 經濟民主化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現政府의 사고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 경제민주화라는 명제만 가지고 보자면 10년

제민주화란 관건이 되겠지만, 때로는 이들이 중심이 돼서 이면에 연구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정부의 방향과 공통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회가 있을 것 같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공론장이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제 3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우리는 이와 무관하게 이 정부를 이룰 때까지 계속해 온 것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弟子: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經濟民主化의 방향도 역시 이 부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승: 89년 7월 경엔 이사를 20여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는 아

▲弟子: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교수님들도 대체로 선생님과 같이 經濟民主化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現政府의 사고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 경제민주화라는 명제만 가지고 보자면 10년

▲스승: 서울대학교同窓會가 동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顯微鏡을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同窓會報의 경우를 보자면 어느 정도 훌륭한 위치에 진출을 했고, 훌륭한 기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렵고 음지에 소외돼 있는 동문들을 찾아 동문사회가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동창회가 사회가 잘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永遠한 나의 恩師

李 俊 求 <72년 商大卒·母校교수>

교육자라고는 하나 나 역시 인간인지라 학생들에게 나의 모든 정성을 쏟지 못할 때가 많다. 무슨 일인가 바쁘게 매달리고 있을 때 학생이 연구실 문을 불쑥 열고 나타나면 차마 내색은 못해도 조금은 귀찮게 느껴지는 것이 내 솔직한 심정이다. 일단 의자에 앉기를 권하고 티없는 얼굴을 바라보면 그때서야 마음 속으로나마 귀찮아 했던 것이 후회되곤 한다. 이럴 때 제자들에게 것처럼 정성으로 대해 주시던 邊先生님 모습을 그려보면 몹시 부끄러운 마음이 된다.

선생님이 제자들 일이라면 한 걸음에 발벗고 나서시는 분이라는 건 한 때 그분의 지도를 받아 본 제자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당신의 제자이면 일단 그 허물을 감춰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분의 너그러움에 감복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많다.

그러나 스승으로서, 그리고 몇 년간은 선배교수로서 邊先生님을 모시면서 진짜 매력을 느꼈던 것은 그분의 직선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빙빙 돌려서 말씀하실 줄 모른다. 물론 그 방법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싫으시기 때문에 항상 딱부러지게 말씀하시는 것이리라. 우리 사회처럼 뉘즈니 돌려 말하는 버릇을 가진 사람으로 딱한 세상에서 그분은 늘 신선함이었다.

우리가 학생일 때 선생님을 중에서 제일 무서워 한 분이 바로 邊先生님이었다. 시시한 짓을 하는 녀석에게는 단번에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때는 어린 소견에 잘 몰랐으나, 엄하게 꾸짖으시는 분일수록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弟子: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교수님들도 대체로 선생님과 같이 經濟民主化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現政府의 사고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 경제민주화라는 명제만 가지고 보자면 10년

▲스승: 89년 7월 경엔 이사를 20여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는 아

▲弟子: 현재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교수님들도 대체로 선생님과 같이 經濟民主化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現政府의 사고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스승: 경제민주화라는 명제만 가지고 보자면 10년

▲스승: 서울대학교同窓會가 동문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顯微鏡을 위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同窓會報의 경우를 보자면 어느 정도 훌륭한 위치에 진출을 했고, 훌륭한 기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렵고 음지에 소외돼 있는 동문들을 찾아 동문사회가 작은 도움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동창회가 사회가 잘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弟子: 오랜 시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양친은 선생님과 더불어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리: 金慶勳기자)

경제正義 실현만이 要諦 司正 척척의지 持續되어야

技術개발 향상으로 産業空洞化 막아야

▲스승: 89년 7월 경엔 이사를 20여명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는 아

여름생각하기問題

정년퇴직 이전부터 오랫동안 생각해오면서 그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참으로 애매한 계절이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

名譽教授 칼럼



金 芳 漢
〈52년 文理大卒·前 人文大교수〉

다. 아래의 이 문제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이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

濟州方言에 흥미「겨 日古語 추적」

「붉은」을 沖繩에선「赤一味」로 사용

色彩語에 나타난 表現, 意味 같아

는 책을 번역하면서 이 책은 이색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2일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2일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1983년 12월 12일에 출판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단과 케의 色彩語 연구에 의하면, 색채어는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는 보편성이 있다. 첫 단계에서 靑과 白의 색명인 동이에 나고 다음에는 赤의 색채어가 발달하며 여기서 다시 黃과 綠의 색명이 발달한다. 이렇 게 해서 여러 색채어가 발달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赤에서 다음 단계의 黃의 색채어가 발달하는데 그 분화 초기, 즉 黃의 발달된 개념으로 완전히 정립하기 전의 과도적 상태에서는 赤와 黃의 혼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혼용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 제주도의 방언인 「붉은」과 「아카」라는 것이 필자의 장적 결론이다.

마지막으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이 계절에 어떤 문제가 하나 있



癌의 原因・治療

朴 在 甲
〈73년 醫大卒·母校교수〉

吸煙·음주·公害가 主原因

환자 80%가 習慣, 환경요인으로 밝혀져

다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흡연과 음주는 암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80%가 습관과 환경 요인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80%가 습관과 환경 요인으로 밝혀졌다. 환자는 80%가 습관과 환경 요인으로 밝혀졌다.

母校의 名譽교수 그現住所...

母校 講壇에서 講義와 研究로 30년 이상을 在職했거나 母校출신은 아니지만 20년 이상을 奉獻한 教授로서 勤續증 교육 및 學術業績이 뛰어나며, 母校발전에 貢獻이 있으신 스승에게 드리는 가장 榮光스런 職銜「名譽教授」, 母校의 把守로 불리는 이들 2백 49명중 別世하신 분이 42명이나 된다. 본란을 통해 서울大學校의 자랑이며, 우리 모두의 師表인 名譽교수의 現況을 確認해 본다. 더욱 康寧하시기를 빌면서 掲載順은 母校大學順에 따랐음. <편집자>

所 屬 姓 名 自宅電話 勤務處(所 屬)	所 屬 姓 名 自宅電話 勤務處(所 屬)	所 屬 姓 名 自宅電話 勤務處(所 屬)
人文大學	工業化學科 沈貞燮 723-4806 학술원회원	教育學科 金宗西 599-4142 한국교육개발원이사장
國文學科 李崇寧 922-1700 학술원회원	" 李文得 683-2795 안철상민원대(주)기술장	" 李榮德 392-9014 명지대총장,교총회장
" 張德順 392-4067 학술원회원	金屬工學科 金東勳 502-5930	" 韓基彦 402-9510 도산사상연구회장
中文學科 車柱環 762-3876 학술원부회장	" 朴平柱 538-1121 고려아연고문	國語教育科 金亨奎 923-8670 학술원회원
英文學科 金濟玉 716-7163	" 韓鳳熙 502-1900	" 李應百 387-8448 국어교육연구소장
" 黃燦鎬 (0343) 77-3263 한양여전대우교수	機械工學科 金孝徑 297-5822	" 李杜鉉 964-8304 학술원회원
佛文學科 吳鉉燭 401-3441	" 李澤植 574-1749	獨語教育科 李景鎮 595-0875
獨文學科 姜斗植 (0343) 44-0770 전북산업대총장	機械設計科 金東垣 793-6960 한국소성가공학회장	社會教育科 李榮基 599-1665
" 池明烈 823-4489 수원대전임	" 朴天卿 643-3500 호남엔지니어링상임고문	歷史教育科 李元淳 591-0463 민족문화추진회회장
言語學科 金芳漢 915-5226 학술험의회이사장	" 廉永夏 463-5925 건설부중장비심의위원	數學教育科 李應泰 782-3964
" 慎翼晟 (0343) 3-2952	" 李榮培 352-0884	化學教育科 李元植 556-6740
" 許雄 932-6863 한글학회이사장	" 鄭善謀 762-5738 오산전문대학장	" 李泰寧 591-3889 문화재위원회위원
國史學科 邊太燮 403-7017 學士院	無機材料學科 林應極 762-6566 고려도토기술연구소장	" 李遵敏 503-4012 學士院
" 韓佑勛 762-4348 學士院	纖維高分子學科 金魯洙 457-7892 의료검사소이사	" 李雄植 877-6250 한국담수생물학연구소장
西洋史學科 羅鍾一 401-0700	資源工學科 金載極 584-6224 學士院	地理教育科 俞景老 555-2829
" 閔錫泓 823-4094 學士院	" 洪準箕 537-0109 한국자원공학회명예회장	體育教育科 尹仁鎬 430-0034 세종대체육과강사
" 梁秉祐 584-6452 서양고전학회장	電氣工學科 禹亨禧 599-0993 學士院	獸醫科大學
" 李敏鎬 871-4677 동경여자대학교교수	" 李承院 743-8101 學士院	獸醫學科 李長洛 821-3497 學士院
古美史學科 金元龍 782-0268 學士院	" 梁興錫 593-0226 현대중경기고문	" 鄭昌國 782-1036 대한수의사회회장
" 金俊燮 815-9830 學士院	" 朴旻鎬 813-9764 (0342) 조명전기설비학회장	" 韓壽南 713-9143 대전과천연구소연구고문
" 金泰吉 401-5295 學士院	電子工學科 李景漢 762-2159 미국전기전자학회중심회원	藥學大學
" 朴洪奎 504-6036	" 李鍾珏 555-9970	藥學科 沈吉淳 402-9547
" 韓荃淑 676-4112 열암기념사업회장	制御計測學科 高明三 403-5279 한국전력공사이사	" 趙允成 未詳
宗教學科 張秉吉 353-4961	造船海洋學科 金在瑾 762-4340 學士院	" 蔡東圭 814-2612 대한보건공정서협회장
社會科學大學	" 任尙鎬 542-3156 한국선급고문	" 韓大錫 555-964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外交學科 董德模 559-2297	土木工學科 朴商朝 562-7965	製藥學科 鞠塚豪 793-9643
經濟學科 金斗熙 582-7662	" 申永琦 575-0204 學士院	" 禹鍾鶴 362-2903 보사부중앙약사심의위원
" 襄福石 763-2803 태평양투자자문위원	" 安守漢 537-0830 (0345) 學士院	音樂大學
" 邊衡尹 878-6988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 鄭寅峻 407-4566	聲樂科 安亨一 359-0222 국립오페라단중신단원
" 林元澤 504-1071 學士院	航空宇宙學科 魏祥奎 549-1158	" 李貞姬 544-8756
" 丁炳休 872-6003 조선대총장	" 李樂周 543-2564 한국기술교육대학장	作曲科 金聖泰 549-4086 예술원회장
" 車耕權 925-5368	化學工學科 李載聖 546-3207 (0343) 學士院	" 李誠載 743-1055 문예진흥원장
社會學科 李萬甲 536-1746 學士院	" 崔雄 79-4939	" 鄭回甲 568-9060 한국음악가협회이사장
" 崔弘基 502-2004 가족학회장	應用數學科 鄭鳳淑 海외거주	器樂科 金淳烈 484-4671 예술원회원
心理學科 李義喆 503-3830 學士院	農業生命科學大學	" 金元福 754-4329 예술원회원
" 鄭良殷 782-2426 學士院	農學科 趙伯顯 822-0817 學士院	" 全鳳楚 595-6331 예술원회원
地理學科 金相昊 422-4664 지리교육학회명예회장	" 李殷雄 (0331) 5-2948	" 鄭鎮宇 234-0471 한국소상공회회장
福祉學科 張仁協 541-1904	" 許文會 (0331) 253-5933	" 李惠求 794-4306 예술원회원
自然科學大學	山林資源科 金甲德 842-7380 (0331) 한국산림정책연구회장	醫科大學
數學科 金正洙 537-8243 學士院	" 朴泰植 (0331) 291-8320 문화재위원회위원	醫學科 高光昱 762-1955 한대병원의료원장
" 閔虎基 583-0460 學士院	動物資源科學科 宋啓源 785-1567 (0331) 學士院	" 金英均 (0417) 555-2220 단대병원의료원장
" 朴乙龍 612-6814 學士院	" 吳鳳國 (0331) 211-9579	" 金應振 556-4896 을지병원의료원장
" 李日海 856-4516	" 李升圭 780-5167 (0342) 원로과학자고문	" 金弘基 591-2555 인천중앙길병원장
生物學科 高允錫 556-0028 學士院	農工學科 朴成宇 (0331) 291-2878	" 朴吉秀 928-0782 을지병원의과부장
" 朴鳳烈 599-3529 學士院	農化學科 李春寧 782-4567 學士院	" 白萬基 543-9671 성애병원이비인후과과장
" 成百能 591-2303	農經濟學科 金文植 619-3907 전경련고문	" 申冕雨 572-9981 인천중앙병원안면연구소장
" 李洙瀨 599-3323 한서대교수	農生物學科 白雲夏 (042) 482-6716	" 沈補星 583-3552
" 池彰烈 404-2640	" 任綱彬 (0345) 407-2656	" 吳鎮燮 599-1597
" 洪淳復 925-0242	" 玄在善 (0331) 211-4979	" 李國柱 409-1781 과학불교연구원장
天文學科 玄正峻 584-1660	天然纖維科 金文淑 (0342) 701-5577 學士院	" 李基寧 782-0538 學士院
化學科 具廷會 599-2266	" 崔炳熙 782-4046 學士院	" 李明馥 503-6370 대림의원장
" 張世憲 334-2378 學士院	農家政學科 李良厚 (042) 522-6701	" 李文鎬 795-5640 서울중앙병원의료원장
" 張世憲 967-6114	園藝學科 柳達永 782-0337 성천문화재단이사장	" 李聖浩 544-1773
" 崔圭源 (0342) 711-5976 學士院	" 表鉉九 795-7609 (0331) 學士院	" 李承薰 914-0196
生物學科 鄭英昊 276-5406 學士院	食品工學科 金載勳 47-2095	" 李寧均 591-6336 세종병원의학연구소장
" 趙完圭 584-0399 생물산업협회장	美術大學	" 李英澤 583-5760
分生物學科 金熙洙 716-5574 學士院	西洋畫科 丁昌燮 798-6275	" 李惟信 923-2721 성애병원피부과과장
微生物學科 李周植 (0335) 32-8729 한국의류학회고문	法科大學	" 任正淳 未詳
大氣科學科 金聖三 813-8894 學士院	公法學科 金箕斗 (0343) 21-0567	" 張信堯 796-0682 學士院
" 鄭昌熙 582-7085 學士院	私法學科 郭潤直 754-9793	" 朱權源 742-2337 자동차보험상임고문
地質學科 金鳳均 337-0619 學士院	師範大學	" 朱東雲 352-4295 주동운방사선과위원장
" 孫致武 392-0456 學士院		" 韓文植 279-3379
" 李商萬 336-9245 學士院		" 許仁穆 841-2179 허인목내과의원장
" 鄭昌熙 743-4737 學士院		" 洪彰義 794-6622 울산의대소아과교수
家政大學		齒科大學
消費兒童科 張明郁 385-2495 가정학회고문		齒醫學科 金英海 967-8126
食營養科 牟壽美 782-0538		" 劉鍾德 784-8707
" 李惠秀 782-4031		" 李春根 793-0338 이촌근치과의원장
衣類學科 金聲連 583-5118 한국의류학회고문		" 張完植 798-7734 장치과의원장
經營大學		" 車文豪 400-7205 차치과의원장
經營學科 吳相洛 352-0038 學士院		行政大學院
" 李庸俊 352-3565 대우재단감사		行政學科 金雲泰 877-9977 學士院
" 韓義泳 912-5871 식품학회장		環境大學院
工科大學		環境計劃科 盧隆熙 793-7092 인력관리연구소이사장
建築學科 金熙春 544-9681 정일엔지니어건축사무소		天然物科學
" 尹張燮 914-6735 學士院		研究所 金濟勳 (032) 692-1973
工業化學科 金俊容 334-2251		" 禹麟根 762-9666 學士院
" 申允卿 400-8700		" 韓龜東 359-4328 學士院
		" 洪文和 815-4022 대한약사회고문

公演

■李熙德 첼로독주회

- 7월 2일 세종소강당
70년 모교音大에 입학, 재학중 渡美하여 루이지아나州立대학원에서 DMA를 취득한 李熙德은 유학중 BATON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있으면서 수차례의 독주회와 협연을 가졌다.

88년 귀국후 코리안심포니 수석을 역임하는 한편 활발한 실내악활동을 하고있다. 베토벤소나타 A장조 69번, 바그너의 조곡 1번, 쇼팽의 소나타 G단조 65번을 들려주는 이번 공연의 피아노는 부인 吳美惠(75卒)동문.

■서울모테트합창단 정기연주회

- 7월 8일 예술의전당
89년 창단된 이래 1백여회의 연주활동을 해온 이들의 14회 정기연주회. 朴治龍(86卒)동문의 지휘로 D.복스테우데의 칸타타, G.포레·C.프랑크의 합창곡 외에 국내 창작성가를 연주한다. 피아노는 廉惠慶(86卒)동문.

■피아노트리오 연주회

- 7월 14일 세종소강당
바이올린 李 活(83년 音大卒·

아트심포니 악장) 첼로 全昭映(84卒·모교출강)피아노 박성미등 젊은 실내악 주자들이 꾸미는 무대. 부산연주회에 이어지는 서울공연에서는 베토벤의 삼중주 E플랫장조 1번, 브람스의 C단조 101번, 멘델스존 d단조 49번등 19세기 곡들을 연주한다.

■崔사나 바이올린독주회

- 7월 21일 예술의전당
80년 모교音大 졸업후 독일 만하임·프랑크푸르트國立음대를 거쳐 美蘭히탄음대에서 수학한 崔동문은 현재 코리아챔버 악장과 무지카오케스트라 지휘를 맡고있다. 이번 독주회에서는 O. Respighi의 소나타B단조, M. Ravel의 소나타G장조 외에 국내초연되는 Teh Uy의 곡이 오른다. 피아노는 宋仁淑(80卒)동문.

■鄭載潤 첼로독주회

- 7월 22일 예술의전당
89년 모교졸업후 독일 프라이브르그音大에서 수학한 鄭동문은 「서울 트리오」의 창단멤버이기도 하다. 현재 트로스엔홀音大 솔리스트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번 공연에서는 바흐의 조곡과 쇼스타코비치·브람스의 소나타를 연주한다.

사끼大 教授)

□白純實(74년 美大卒·本會理事)

백순실이 시도한 입체설치작업은 회화의 연장개념이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동양의 가정에서 전통의 덮개



- 무제. 9301/한지, 대나무, 과슈, 전등, 사진/1993
- 7월 7일까지 키미아트갤러리

형태로 존재하는 燈의 사용이다. 관람자는 채색된 구형의 등과 만나고 손으로 만지거나 심지어 발로 찰수 있도록 참여가 유도된다. 여기서 전기는 불을 밝혀주는 도구로 서만 존재하며,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동력으로서의 메시지는 갖지 않는다. (이용우/미술평론가)

展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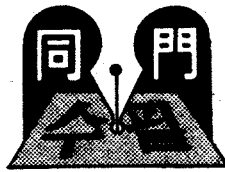
□朴南姬(74년 美大卒·경북大 教授)

그녀의 회화의 본질적인 이념은 공간에 浮遊하는 빛을 어떻게 회화



- 도시의 여인/Acrylic On Canvas/40.8x31.6cm/1993
- 7월 4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로서 표현하는가에 있다. 80년대까지 그녀는 무한한 우주공간, 거기에서 발하는 빛과 색채를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가지로 시도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온 현재, 그녀의 관심은 보다 인간적인 형태로, 보다 구상화 된 도시적인 이미지가 되어 그속에서 인간의 형태가 나타난다. <가네세게 마모루/나가



<69년 文理大卒·小説家·
檀國大佛文學 교수>

또 다시 그런 요구를 했다. 나는 조금 좌중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또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 후에 집사 략에게 물었다. 이 연작의 15점이나 되는 출작 소설들을 출판부·편집사로 입회했다는 것이었다. 조금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파트 수화영입이 소설 책을 그렇게 열심하는 일은 전도

구해 어려움에 있던 관리사무소에 애기를 해서, 그분의 친구를 취직 시켰다. 그 후에 그분들이 단지 어디서 일사를 하던 것이 기억이 날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잊어 버렸다. 며칠 전 어느 학교에서 강연 부락이 있어서, 보내는 차를 타고 그 학교로 가게 되었다. 차 안에서 나는 강연할 내용을 대략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

장 집점으로 생각해 본 내용이 아닌가 한다. 자기를 잃어 버린 채, 창작집업과 강의 준비에 파묻혀 버린 지 오래된 시간을 보내고,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나를 데리고 올까? 라는 생각을 내 세뇌도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나는 나의 주변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않았을까.

이제는 어쩌면 지금까지의 내 일생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

다. 그런데 그 후에 빠진 애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대학생활 20년 가까이 해 온 나로서 이 현실은 일이었다. 출근시간이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차는 근한 시간을 택했다. 그 사이 나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강연내용을 정리하기 위

이것은 어쩌면 지금까지의 내 일생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가

친구생각

가난과 방황에 지쳤던 젊은시절 그리워

『이거요, 내 친구가 주었지라 요. 양아보단...』
『그럼 선생님은 그 때 그들의 부탁으로 우리 아파트에 취직을 하셨...』
『그러지라. 아 내가 몇 번이나 이사를 했지...』
『네 그랬지요 참!』
아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까지 서로를 취직을 시켜주고 채까지 돌려보고 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일었다. 그분들을 고향친구들이었다.

대한선교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북한정권의 정치개혁과 국민의식개합' 등의 주제로 제13차 학술세미나를 개최

▲尹龍熙(85년 環大院卒 慶北大교수)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❿ ㉓ ㉔ ㉕ ㉖ ㉗ ㉘ ㉙ ㉚ ㉛ ㉜ ㉝ ㉞ ㉟ ㊱ ㊲ ㊳ ㊴ ㊵ ㊶ ㊷ ㊸ ㊹ ㊺ ㊻ ㊼ ㊽ ㊾ ㊿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㐀 㐁 㐂 㐃 㐄 㐅 㐆 㐇 㐈 㐉 㐊 㐋 㐌 㐍 㐎 㐏 㐐 㐑 㐒 㐓 㐔 㐕 㐖 㐗 㐘 㐙 㐚 㐛 㐜 㐝 㐞 㐟 㐠 㐡 㐢 㐣 㐤 㐥 㐦 㐧 㐨 㐩 㐪 㐫 㐬 㐭 㐮 㐯 㐰 㐱 㐲 㐳 㐴 㐵 㐶 㐷 㐸 㐹 㐺 㐻 㐼 㐽 㐾 㐿 㑀 㑁 㑂 㑃 㑄 㑅 㑆 㑇 㑈 㑉 㑊 㑋 㑌 㑍 㑎 㑏 㑐 㑑 㑒 㑓 㑔 㑕 㑖 㑗 㑘 㑙 㑚 㑛 㑜 㑝 㑞 㑟 㑠 㑡 㑢 㑣 㑤 㑥 㑦 㑧 㑨 㑩 㑪 㑫 㑬 㑭 㑮 㑯 㑰 㑱 㑲 㑳 㑴 㑵 㑶 㑷 㑸 㑹 㑺 㑻 㑼 㑽 㑾 㑿 㒀 㒁 㒂 㒃 㒄 㒅 㒆 㒇 㒈 㒉 㒊 㒋 㒌 㒍 㒎 㒏 㒐 㒑 㒒 㒓 㒔 㒕 㒖 㒗 㒘 㒙 㒚 㒛 㒜 㒝 㒞 㒟 㒠 㒡 㒢 㒣 㒤 㒥 㒦 㒧 㒨 㒩 㒪 㒫 㒬 㒭 㒮 㒯 㒰 㒱 㒲 㒳 㒴 㒵 㒶 㒷 㒸 㒹 㒺 㒻 㒼 㒽 㒾 㒿 㓀 㓁 㓂 㓃 㓄 㓅 㓆 㓇 㓈 㓉 㓊 㓋 㓌 㓍 㓎 㓏 㓐 㓑 㓒 㓓 㓔 㓕 㓖 㓗 㓘 㓙 㓚 㓛 㓜 㓝 㓞 㓟 㓠 㓡 㓢 㓣 㓤 㓥 㓦 㓧 㓨 㓩 㓪 㓫 㓬 㓭 㓮 㓯 㓰 㓱 㓲 㓳 㓴 㓵 㓶 㓷 㓸 㓹 㓺 㓻 㓼 㓽 㓾 㓿 㔀 㔁 㔂 㔃 㔄 㔅 㔆 㔇 㔈 㔉 㔊 㔋 㔌 㔍 㔎 㔏 㔐 㔑 㔒 㔓 㔔 㔕 㔖 㔗 㔘 㔙 㔚 㔛 㔜 㔝 㔞 㔟 㔠 㔡 㔢 㔣 㔤 㔥 㔦 㔧 㔨 㔩 㔪 㔫 㔬 㔭 㔮 㔯 㔰 㔱 㔲 㔳 㔴 㔵 㔶 㔷 㔸 㔹 㔺 㔻 㔼 㔽 㔾 㔿 㕀 㕁 㕂 㕃 㕄 㕅 㕆 㕇 㕈 㕉 㕊 㕋 㕌 㕍 㕎 㕏 㕐 㕑 㕒 㕓 㕔 㕕 㕖 㕗 㕘 㕙 㕚 㕛 㕜 㕝 㕞 㕟 㕠 㕡 㕢 㕣 㕤 㕥 㕦 㕧 㕨 㕩 㕪 㕫 㕬 㕭 㕮 㕯 㕰 㕱 㕲 㕳 㕴 㕵 㕶 㕷 㕸 㕹 㕺 㕻 㕼 㕽 㕾 㕿 㖀 㖁 㖂 㖃 㖄 㖅 㖆 㖇 㖈 㖉 㖊 㖋 㖌 㖍 㖎 㖏 㖐 㖑 㖒 㖓 㖔 㖕 㖖 㖗 㖘 㖙 㖚 㖛 㖜 㖝 㖞 㖟 㖠 㖡 㖢 㖣 㖤 㖥 㖦 㖧 㖨 㖩 㖪 㖫 㖬 㖭 㖮 㖯 㖰 㖱 㖲 㖳 㖴 㖵 㖶 㖷 㖸 㖹 㖺 㖻 㖼 㖽 㖾 㖿 㗀 㗁 㗂 㗃 㗄 㗅 㗆 㗇 㗈 㗉 㗊 㗋 㗌 㗍 㗎 㗏 㗐 㗑 㗒 㗓 㗔 㗕 㗖 㗗 㗘 㗙 㗚 㗛 㗜 㗝 㗞 㗟 㗠 㗡 㗢 㗣 㗤 㗥 㗦 㗧 㗨 㗩 㗪 㗫 㗬 㗭 㗮 㗯 㗰 㗱 㗲 㗳 㗴 㗵 㗶 㗷 㗸 㗹 㗺 㗻 㗼 㗽 㗾 㗿 㘀 㘁 㘂 㘃 㘄 㘅 㘆 㘇 㘈 㘉 㘊 㘋 㘌 㘍 㘎 㘏 㘐 㘑 㘒 㘓 㘔 㘕 㘖 㘗 㘘 㘙 㘚 㘛 㘜 㘝 㘞 㘟 㘠 㘡 㘢 㘣 㘤 㘥 㘦 㘧 㘨 㘩 㘪 㘫 㘬 㘭 㘮 㘯 㘰 㘱 㘲 㘳 㘴 㘵 㘶 㘷 㘸 㘹 㘺 㘻 㘼 㘽 㘾 㘿 㙀 㙁 㙂 㙃 㙄 㙅 㙆 㙇 㙈 㙉 㙊 㙋 㙌 㙍 㙎 㙏 㙐 㙑 㙒 㙓 㙔 㙕 㙖 㙗 㙘 㙙 㙚 㙛 㙜 㙝 㙞 㙟 㙠 㙡 㙢 㙣 㙤 㙥 㙦 㙧 㙨 㙩 㙪 㙫 㙬 㙭 㙮 㙯 㙰 㙱 㙲 㙳 㙴 㙵 㙶 㙷 㙸 㙹 㙺 㙻 㙼 㙽 㙾 㙿 㚀 㚁 㚂 㚃 㚄 㚅 㚆 㚇 㚈 㚉 㚊 㚋 㚌 㚍 㚎 㚏 㚐 㚑 㚒 㚓 㚔 㚕 㚖 㚗 㚘 㚙 㚚 㚛 㚜 㚝 㚞 㚟 㚠 㚡 㚢 㚣 㚤 㚥 㚦 㚧 㚨 㚩 㚪 㚫 㚬 㚭 㚮 㚯 㚰 㚱 㚲 㚳 㚴 㚵 㚶 㚷 㚸 㚹 㚺 㚻 㚼 㚽 㚾 㚿 㜀 㜁 㜂 㜃 㜄 㜅 㜆 㜇 㜈 㜉 㜊 㜋 㜌 㜍 㜎 㜏 㜐 㜑 㜒 㜓 㜔 㜕 㜖 㜗 㜘 㜙 㜚 㜛 㜜 㜝 㜞 㜟 㜠 㜡 㜢 㜣 㜤 㜥 㜦 㜧 㜨 㜩 㜪 㜫 㜬 㜭 㜮 㜯 㜰 㜱 㜲 㜳 㜴 㜵 㜶 㜷 㜸 㜹 㜺 㜻 㜼 㜽 㜾 㜿 㝀 㝁 㝂 㝃 㝄 㝅 㝆 㝇 㝈 㝉 㝊 㝋 㝌 㝍 㝎 㝏 㝐 㝑 㝒 㝓 㝔 㝕 㝖 㝗 㝘 㝙 㝚 㝛 㝜 㝝 㝞 㝟 㝠 㝡 㝢 㝣 㝤 㝥 㝦 㝧 㝨 㝩 㝪 㝫 㝬 㝭 㝮 㝯 㝰 㝱 㝲 㝳 㝴 㝵 㝶 㝷 㝸 㝹 㝺 㝻 㝼 㝽 㝾 㝿 㞀 㞁 㞂 㞃 㞄 㞅 㞆 㞇 㞈 㞉 㞊 㞋 㞌 㞍 㞎 㞏 㞐 㞑 㞒 㞓 㞔 㞕 㞖 㞗 㞘 㞙 㞚 㞛 㞜 㞝 㞞 㞟 㞠 㞡 㞢 㞣 㞤 㞥 㞦 㞧 㞨 㞩 㞪 㞫 㞬 㞭 㞮 㞯 㞰 㞱 㞲 㞳 㞴 㞵 㞶 㞷 㞸 㞹 㞺 㞻 㞼 㞽 㞾 㞿 㟀 㟁 㟂 㟃 㟄 㟅 㟆 㟇 㟈 㟉 㟊 㟋 㟌

하는 것들이 민들사판
로 출간됐다.

현재 금고수 있는 학부들을
학회인자물리분과 소속
로 활동중이며, 서울대
대학원기초과학육성사업
한사업의 조정위원장회
위원장, 초전도가속기사
의 한·미실험위원회위원
장으로 국내 고에너지물
리발전에 앞장서고 있
다.

가죽은 단단, 콜로이드
화학실험에 만난 전
수여자의 슬픈 기억
있는 그 밤 영자와 콜로이드
이 대학에 재학중인 자의
유령을 두고 있다. (續)

하는 것들이 민음사판으로 출간됐다.

▲玄勝
(43) 大卒 前國
務総理

▲金秋(57)卒
理大卒
會理事

▲李鳳瑞 (55년 産)
大入・煎
장부장

최근 東嶼전설(주) 사장
추임

사회발
한 분이
를 맞는

분
오는 8
학교확실
나 同窓
會의 人的
밝혀 연
습니다.



캠퍼스 주변私有地 편입

母校부지와 등기교환

母校(延建坪)과 캠퍼스 주변의私有地 중 6필지(延建坪 18필지, 延建坪 18필지, 延建坪 18필지, 延建坪 18필지, 延建坪 18필지, 延建坪 18필지)를 재부지로 부터 모교재산으로 관리한다.

기초과학발전에 획기적 계기

연건평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교육연구공동器機院 준공

기초 과학

전국 대학의 연구자들이 첨단 연구용 기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基礎科學教育研究共同器機院」(원장: 梁基煥)이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에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준공되었다. 이 시설은 延建坪 3천4백평,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장비비를 포함하여 74억 7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延建坪 3천4백평의 기기원 건물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發展기금 1천만원 出捐

法大17회同期會서, 특별計定으로 出捐

63년 法大출입생들로부터 구성된 17회 동거회에서 지난날 27년 大學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母校에 출捐했다.

출입 30주년을 기념, 그동안 延建坪 3천4백평, 지상 4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장비비를 포함하여 74억 7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韓萬靑교수 病院長 취임

韓萬靑교수 病院長 취임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農工센터 開所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水原캠퍼스서 展示會도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캠퍼스 電算網 完決

母校, IBM간 6년사업으로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延建坪 3천4백평의 工事, 시설비 74억 들어

理事

在奎⑤9호문헌조서전

人名
該當
度

鄭聖哲(66)정무제1·보좌관
鄭載一(56)한국산업인사부장
鄭致根(61)변호사
趙東元(53)해운고교원회
趙正濟(59)변호사
趙駿烈(60)상업고교장
千命基(58)한국수출물류협회
崔洛賢(58)계성제지부회장
崔斗衡(55)전원개발회장
崔雲祥(48)불영구민단
崔仁基(66)내무차관
許柱旭(61)산회투금사장
洪承宋(58)한국컴퓨터사장
洪鎮泰(55)산사목재회장
黃秉一(73)물어범물사무소
皇甫慶石(55)광동전자업사장

◆師範大學

- ▲姜湘哲(57)충남대 대학원장
- ▲郭厚燮(56)의성신고를고장
- ▲權相澈(35)안양工專학장
- ▲權兌遠(54)충남대교수
- ▲金相中(51)청주교대교수
- ▲金堤中(51)전남교원연수원장
- ▲金永濤(56)포항대응용교장
- ▲金永泰(57)주S T M 사장
- ▲金章鎔(58)부산고교교장
- ▲金重鉉(61)고령고교교장
- ▲金贊鉉(68)세제일부사장
- ▲金玄坤(33)대전대인기부장

盧叔載⁶⁶ 시인인즉 산수사자장
 文炳寬⁶⁴ 하연해운사자장
 文尙錦⁵⁵ 남산인화조장
 允吉⁶⁰ 문호사
 閔驥翼⁵⁶ 前고려대기원처장
 朴松子⁶⁷ KIST 연구원
 朴鍾國⁷¹ 경희대교수
 朴鍾遠⁵⁷ 을지고대연주소원장
 朴昌洪⁶⁵ 서울세무서과장
 朴漢植⁶³ 前한국공무원대교수
 徐勇雄⁶⁹ 서울시교원우원
 宋生根⁷¹ 서울화원
 安任洙⁶⁹ 동대교수
 吳培根⁴⁹ 前직실고교교장
 元惠榮⁷¹ 국회의원
 尹士大⁶⁶ 前직실고교교장

李錫條⁵⁹ 金오래미콘사장
李榮德⁵² 敎總회장
李元雨⁶⁹ 교육부연수부장
李益煥⁶⁸ 연세대교수
李一薰⁵³ 약산농협교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